

충청남도 제2새마을운동 사업 방향과 과제 연구

성태규(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 차

1. 새마을운동의 시대적 과제와 역할
2. 제2새마을운동의 성격
3. 타 시도 새마을운동 사례(경상북도를 중심으로)
4. 충남의 제2새마을운동 추진현황
5. 충남 제2새마을운동의 방향과 과제
6. 3농 혁신과 연계한 제2새마을운동의 방향
7. 결론 및 정책제언

충남발전연구원

1. 새마을운동의 시대적 과제와 역할

1) 새마을운동의 성격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근대화과정에서 농촌개발운동으로 1970년대 시작되었음.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우리 농촌의 ‘잘 살기 위한 운동’으로 출발하였음. “근면”은 절약정신을 일깨우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강조하였음. “자조”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지를 북돋우며, “협동”은 어려움과 문제를 구성원이 함께 극복하고, 공동체를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발전시킨다는 정신을 의미함

새마을운동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였음. 구체적 목표로는, 첫째, 정신운동으로서의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임. 근면·자조·협동정신의 생활화, 국가관과 민족주체성의 확립, 실질을 숭상하는 합리적인 생활태도,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위한 문화시민으로서의 의식함양 등을 목표로 하였음. 둘째, 낙후지역 개발운동으로 초기에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등을 목표로 하였고, 이후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여 도시생활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였음

2)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의 전개¹⁾

농촌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은 크게 기반조성단계(1971~1973), 생산기발시설 확충단계(1974~1976), 소득기반 확충단계(1977~1979) 등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기반조성단계(1971~1973)에서는 농촌지역의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소규모지원을 바탕으로 마을주민들의 공동사업을 추진되었음. 주로 마을안길 넓히기, 지붕개량, 담장개량, 소하천개보수, 공동우물시설, 간이급수시설, 하수구정비, 공동작업장시설, 마을회관 건립, 마을창고 건립 등 농촌의 기초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되었음. 이 단계에서 정부는 우수마을을 선별하여 시상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였음

1) 오유석 엮음,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 한울 2014. pp.355-362 참조.

생산기발시설 확충단계(1974~1976)에서는 마을 안길 확장, 농로 개설, 소교량 가설, 국도 및 지방도 정비 등 농촌도로망이 개선되었음. 논두렁 정리, 경지 정리, 수리시설 정비, 농기계 보급 등을 통한 기초적 농업환경도 개선하였음. 이 단계에서는 우수마을 또는 성공마을을 중심으로 한 농촌전기공급과 법정 리·동까지의 마을통신 보급 등 마을의 전기통신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음

소득기반 확충단계(1977~1979)에서는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의 다양화가 추진되었음. 퇴비증산, 지력증진, 협동영농, 마을소득사업 등의 증산사업과 더불어 소하천가꾸기, 국토 가꾸기, 다목적 소류지 시설, 마을양묘 등을 마을노임사업으로 복차사업이 시행되었음. 복차사업은 마을주민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지급된 노임의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소득사업을 벌이는 복차방식의 사업을 의미함. 그리고 1개 군(면) 1개 새마을 공장 건립사업과 토착공예품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도 추진하였음.

새마을운동은 정신계발 사업도 병행하였음. 새마을정신의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지침과 교육사업을 시행하였음. 부조리 일소와 주민협동의 조직화, 허례의식 일소와 관혼상제 비용 절약, 가족계획 시행, 농가저축 촉진, 마을공동기금 조성, 새마을교육의 확산 등을 추진하였음. 또한 농가아궁이 개량, 굴뚝 개량으로 농촌마을의 연료문제를 해결을 시도하였고, 초지 조성, 산지 조림, 마을 내 식수 권장, 화전 정비, 연료림 조성, 사방사업 등을 통해 조림과 소득원 확보를 시도함.

3) 새마을운동 방법

첫째, 정부는 환경개선, 정신개조, 소득증대 등을 동시에 추진함.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을주민들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부 지원과 마을주민들의 노동력을 결합시킨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음. 1970년부터 시행된 새마을가꾸기 사업은 기초적인 마을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마을주민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의욕을 유발하는 사업이었음. 기초환경개선을 통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이런 정신개조를 통해 농촌소득증대를 추진하였음. 정신개조는 이

런 자립정신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 인습의 일소, 근대적 기술과 과학의 합리적 수용, 전통적 미풍양속 계승, 건전한 국민정신 배양 등의 분야를 포괄하였음.

둘째, 정부는 목표를 제시하고 마을 승급을 통해 농촌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음. 정부는 목표실현 단계를 계획하였음. 1971년부터 1973년까지 기반 조성 단계에서는 전국의 마을을 대상으로 기초마을 30%, 자조마을 60%, 자립마을 10% 등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고, 1974~1976년까지는 자조발전 단계로 자조마을 60%와 자립마을 40%로 설정하였음. 1977~1981년까지는 자립완성 단계로 정부의 지원 없이 농민들의 자조노력에 의해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는 자립마을이 전국 모든 마을에서 실현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음.

이런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의 명칭은 일정한 조건과 실적에 따라 승급되는 수준별 마을 단계를 의미함. 기초마을을 간선 마을 안길, 마을 진입로 및 농로, 소하천 정비, 수리율 70%, 협동작업반 활동, 마을기금 30만원, 호당 소득 50만원 등의 기준을 달성한 마을임. 자조마을은 마을 안길, 경작 농로, 마을 사이의 세·소천, 협동생산사업 시행, 마을기금 50만원, 호당 소득 80만원, 동력방제기 사용 등의 기준을 달성한 마을에게 주어졌음. 자립마을은 마을 밖 소·중천, 수리율 95%, 호당 소득 140만원, 마을기금 100만원, 동력경운기·동력탈곡기 사용 등의 기준을 달성한 마을이었음.

셋째, 농촌마을의 참여를 유도하였음. 농촌마을의 참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짐. 먼저 새마을지도자의 마을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정부는 새마을운동 초기부터 교육, 유·무형의 보상 등을 통해 새마을지도자를 육성하였음.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지도자들을 마을의 실질적 대표자가 되도록 하였음.

넷째, 정부의 정책적 의지임. 정부는 새마을운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과 읍·면을 통해 동참을 촉구함. 대통령의 성공마을 시찰과 특별지원금 제공, 월간 경제보고회의 우수 새마을지도자 초청, 정부 요인들의 새마을시찰 등은 새마을운동이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산하는데 일조하였음.

다섯째, 마을단위의 추진임. 1970년대까지 “계”, “회” 등의 다양한 명칭과 형식으로 있었던 마을회의는 농촌새마을운동의 조직체제로 확대·편입

됨. 기존의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작업반, 상조계, 금고 등 마을의 자치조직들이 마을회의로 재구성되면서 마을주민들의 집단적 참여 구조가 마련되자 마을회의를 통해서 리·동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마을담당공무원 등은 새마을사업에 대한 설득, 호소, 계몽, 교육 등 마을주민들과의 다차원적 교류를 시도할 수 있었음. 마을회의를 통해 마을주민의 토지회사, 기금조성, 의견충화 등이 이루어졌음.

4) 새마을운동의 한계

새마을운동은 마을단위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력비리에 의해 정치변혁과 함께 그 성과가 과소평가되기도 함. 발전적 시각에서 새마을운동의 한계를 정리하면,

첫째, 과거 정부주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많은 경우 새마을운동을 우리나라의 의미있는 지역사회개발 모델로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연관을 지어 보는 시각이 있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빈곤탈출과 경제성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이었고, 국민의 의식수준이 그 만큼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여 새마을운동을 평가하여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성과를 왜곡되게 보는 관점이 있음.

둘째, 1970년대 추진된 새마을운동은 그 당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의 추진과정에서 하향식 접근방법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관주도 활동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관주도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크게 제한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1980년대 12월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발족하고 이어서 산하 13개 시·도에는 지부를, 각 시·군에는 지회를 설치하여 민간주도방식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새마을운동 민간기구의 조직과 권한이 지극히 한정적이어서 실질적으로 민간주도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음.

셋째, 농업과 농촌 중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당시 농촌이 대부분이었고, 농촌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가 가장 큰 과제였던 만큼 농업과 농촌중심의 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음. 그러나 현재 도시 새마을운동이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새마을운동 자체도 70년대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오래되고 낡은 것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음.

넷째, 소득증대와 경제개발 중심의 운동임. 시대적 여건상 국민들의 빈곤탈피가 가장 큰 목표였던 시기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도모하고, 새마을운동도 생산기반 확충, 영농기법 개선, 그리고 유통구조의 개선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사업을 실시하였음.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러한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를 찾기 어렵지만 소득증대와 경제개발 등은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의 지표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었던 면도 있음.

다섯째, 차세대 리더양성이 부족하였음.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마을리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학들은 지역사회개발학과나 지역개발학과 등 새마을 인접학과를 개설하고 새마을 리더를 양성하였음.²⁾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새마을리더의 육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음.

2. 제2새마을운동의 성격

1) 제2새마을운동의 정의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can do" 정신으로 국민정신운동이며, 농촌 지역발전정책이기도 하였으며, 도농간 균형발전전략이기도 하였음. 기존 새마을운동의 어떤 측면(정신적 원리, 추진방법, 추진주체, 추진방법 등)을 강조하고 보완할 것인가에 따라, 제2새마을운동은 새로운 정신계발운동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지역사회 발전전략, 혹은 농촌발전전략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제2새마을운동은 지역마다 그 주안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과 추진방식의 바탕 위에 오늘날의 시대적 환경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가치와 방식을 접목한 국민정신운동 또는 지역발전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음

2) 제2새마을운동의 전개

1988년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국회가 국정감사와 5공화국 비리 청문회를 시작하게 되자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음. 이른바 ‘새마을 비리’가 폭로되자 새마을운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음. 이에 따라 1989년부터 본부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개편하고 순수한 민간주도 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을 재추진해 나갔음. 1990년대 새마을운동은 그 목표도 ‘잘살기 운동’에서 ‘함께 잘살기 운동’으로 재정립하여 더욱더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갔음.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개선사업, 마을간 도로·교량 개설, 농로개설, 도로보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줄여나가기 등을 추진했고, 이외에도 일 더하기, 근검절약, 독서운동, 환경보존운동 등을 전개하였음. 1998년 12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제창하였음.

주요 내용은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운동을 지향이념으로 하며, 경제난 극복과 공동체사회 구현을 목표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실천원리로 하여 새마을운동사업의 성격과 방향을 나라 살리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건설,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 민족통일 준비, 공생공영의 세계화 운

동에 맞춘다는 것임. 이를 생활현장에서 구체화하기 위하여 생활·의식 개혁운동, 민간사회안전망운동, 환경보전운동, 지역활성화 운동, 통일 및 국제화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음.

2000년대에 들어서 새마을운동은 시대적·사회적 흐름에 따라 크게 정보화와 세계화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90년대 중반이후 사회가 정보화되면서 새마을운동도 인터넷새마을운동으로 확대 발전되고 이를 통하여 농촌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 2001년 6월 경북 성주군 도흥이 정보화 시범마을에서 인터넷새마을운동 선포식을 갖고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음. 농촌의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여 인터넷으로 모든 생활과 산업이 연계된 e-커뮤니티를 모델화시키려고 함.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를 농촌의 CIO로 육성하며, 전자상거래의 일상화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며, 정보격차 해소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또한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추진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동시에 일회적이거나 시혜적인 성격을 갖는 물적 지원 중심에서 인적 교류 및 상호 협력 중심으로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제2새마을운동의 추진현황

① 기본정신의 추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었음. 절대적 빈곤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정치적 변동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성장, 민주주의 발달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봉사, 창조, 배려” 등의 새롭제 제시되고 있음. 이는 과거의 기본정신은 유지하되, 21세기에 부응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타인에 대한 봉사, 새로운 미래발전을 위한 창조정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추가된 것임

원주시의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통해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건설을 위한 봉사활동”을 선언하였음. 복지사회

와 환경문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병리현상을 치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1970년대에는 강조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들이 제2새마을운동에서는 강조되고 있음

②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을 위한 시민운동

사회(적) 자본은 지역발전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호호혜의 규범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공동의 理解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퍼트남(R. Putnam)의 주장에 근거함. 구성원의 공동 인식규범은 지역의 갈등현안을 해소하고 소속지역의 공동현안과 利害관계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구성원의 정신계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특히 개인화, 탈물질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空洞化되어 가는 농어촌의 세대구조 변화 등에 대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③ 사업대상의 전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마을도로 확장, 지붕개량 등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 구축이 1차적 사업목표이었음. 그러나 오늘날 새마을운동의 주요 사업대상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마을공동체사업(communitary business)을 통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내 농산물을 지역내에서 소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생공존을 모색하는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 녹색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업으로 연계되어 전환되고 있음. 특히나 지구화 시대 FTA확대로 인한 전통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공동화되고 있는 농어촌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음. 일자리 창출, 지역의 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으로 제2새마을운동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④ 민간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공적 조직을 통해 행정적으로 위로부터 아래

로 진행된 정신변혁운동이었기 때문에 민간교육기관의 연계성이 강하지 못하였음. 제2새마을운동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성에 근거한 민간대학 등 교육기관이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을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예를 들어 영남대학교와 민간새마을운동 연구단체인 ‘글로벌새마을포럼’은 대구동구청과 협약을 맺어 ‘글로벌 새마을 스쿨’을 개교함.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발전경험을 교육, 전수하여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을 이끌어갈 평생학습모델을 만들고 있음. 지자체 단위로 이 같은 형태의 새마을 관련교육기관이 설립된 것은 처음이지만, 향후 이런 형태의 평생교육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노력은 지역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을 접목한 평생교육을 통해서 지역문제 해결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3. 타 시도 새마을운동 사례(경상북도를 중심으로)²⁾

1) 추진 과정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종주도를 자처하며 ‘21C 새마을운동’을 선포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은 4대 핵심과제 아래 총 28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음. 즉, FTA를 뛰어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새마을운동³⁾, 사회적 비용절감⁴⁾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둔 도시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을 통한 선진 도민의식함양과 새마을운동 국제화 추진으로 크게 유형화 되어 추진되고 있음.

경상북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북도 도시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사업,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사업,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사업 등이다. 둘째,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국제화 추진은 세계빈곤퇴치의 실천모델로 평가 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단순 원조사업이 아닌 선진국과 차별화된 한국형 원조개발모델로 정립, 국제적 ODA사업 실천모델로 보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적 행동의 예로서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안정적인 새마을운동세계화 추진을 위해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출범시켜 역량 있는 국제적 재단으로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2)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지원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역점시책은 새마을운동 명품화 추진, 녹색새마을운동, 약자를 배려한 공동체, 정예 및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이 라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첫째,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명품화 추진사업임. 이 사업은 대한민국 새

2) 최인규·이정훈, 새마을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0집 3호, 2013.2. 참조

3)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범국민 녹색생활화 실천, 강하천 살리기, 지구온난화 방지, 자원 재활용, 의식 녹색화를 통한 녹색부국, 그린마을조성(10개소) 등임.(<http://www.gumnews.co.kr>).

4) 국내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새마을운동은 환경정화활동, 자원재활용품수집 등 Clean 경북 만들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녹색생활 실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등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생필품 전달 등 이웃사랑 실천운동, BS(북스타트)120운동, 신간 도서 보급 등 범도민 독서생활화운동, 새마을가꾸기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http://blog.daum.net/smtime/5833>).

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새마을을 운동 시범단지 가꾸기, 새마을운동 체험
공원조성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됨.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은 박정희 대통
령 생가 주변에 한마음 공원과 역사이해 공원, 창의연수 공원, 글로벌 공원
등 새마을운동을 한자리에서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종합 테마 공원
을 조성하는 사업임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는 새마을발상지로서 위상정립과 새마을운
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추진해온 새마을 운동 성역화 사업임.
새마을운동 체험공원조성은 포항시 문성마을의 근대 역사문화와 농촌다움
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사업임

둘째,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한 범국민 녹색생활화 실천사업임. 이 사업
은 강하천살리기, 지구온난화 방지, 자원 재활용, 의식녹색화를 통한 녹색부
국, 그린마을조성 등으로 구분되어짐. 특히 농어촌 새마을운동에서 농민 사
관학교 설치 등 신 농어업 10대 프로젝트와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2016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200개 미래형 농어촌 새마을을 조성
하는 계획 등이 있음. 또한, 도시 새마을운동의 첫 번째 실천과제는 새마을
ECO-337운동 임. ECO는 환경보존실천 운동으로서 근면, 자조, 협동정신
과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7가지 중점과
제를 실천하자는 것임.

셋째, 약자를 배려하는 살맛나는 공동체만들기 사업임. 이 사업은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돕기 등이 있음. 이를 위해 친절,
질서, 청결, 절약 등 4대 생활실천 운동과 이웃사랑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

넷째, 새마을지도자 정예 및 차세대지도자육성 사업임. 이 사업은 도민
의식 선진화교육, 새마을지도자대학 운영, 통일대비 새터민 새마을교육, 다
문화가정 새마을교육 등으로 구분되어 짐.

3) 경북 제2새마을운동의 시사점

경북이 박정희대통령의 생가지 이었으며,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는 특
수성이 있었지만, 새마을운동의 전통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배태되어 있다
는 점은 나름 의미를 지니고 있음. 경북의 제2새마을운동은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내포함.

첫째, 지자체에서 새마을운동이 아직도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임. 경북이 박정희대통령과의 고향이라는 정치적 입지로 민선 이후에도 경북에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배경이 되었겠지만, 민선5기 까지 여당에서 도지사가 배출된 강원도와 비교해서도 경북의 제2새마을운동은 활발히 전개되었음. 새마을운동이 지역발전이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3공화국(유신공화국)에서와 같이 사회 각 부문에 새마을운동이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함. 과거 5공화국 비리와 함께 새마을운동의 지위와 의미가 정치적 소용돌이와 함께 급격하되면서, 새마을운동의 의미가 퇴락된 것과는 달리 경북에서는 아직 새마을운동의 의의와 가치가 역할을 하고 있음.

둘째, 새마을운동이 경북 광역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제2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여러 실국의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임. 충남에서는 주로 민간이 중심이 되어 새마을사업이 추진되어, 광역행정은 주로 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비하여 경북은 환경부문, 농어업·농어촌부문, 복지부문, 정신계발부문 등 여러 부문에서 제2새마을운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이는 현재 민선5~6기 충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의 범위를 뛰어 넘어, “지속가능 발전”, 복지를 통한 “행복충만 충남”을 실현하는 여러 부문을 제2새마을운동이 포괄하고 있음을 의미함.

셋째, 제2새마을운동이 도청, 시·군청 등 일반행정의 영역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도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임. 경북지역의 대학에서는 제2새마을운동의 가치를 교육적·학술적으로 주민에게 전파함으로써, 지역개발의 리더를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충남에서는 이를 특히 “3농혁신”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부문임.

4. 충남의 제2새마을운동 추진현황

충남은 제2새마을운동의 가치를 과거 가치인 “근면, 자조, 협동”에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여 “나눔, 봉사, 배려”의 가치를 더하여 제2새마을운동을 “선진 도민정신 함양”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보면, 충남의 제2새마을운동은 과거 지역발전전략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역차원에서의 복지과 공동체 정신의 함양에 목표를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성격은 문화공동체운동(삶의 질 향상), 이웃공동체운동(인보활동 활성화), 경제공동체운동(창조경제 기여), 지구촌공동체운동(새마을운동 해외전수)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충남의 제2새마을운동의 중점과제와 방향 속에서 새마을 관련 사업을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음.

중점과제	방향	새마을사업
문화공동체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시민의식 함양 - 독서문화운동 - 품격 사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읍면동 1지역 가꾸기(깨끗한 충남) -충청남도 독서경진대회 등 문고운동 -신간도서 보급 및 피서지문고 운영 -4대악 근절 및 반부패 의식개혁운동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범도민 교통품격 높이기 캠페인 -건전문화 실천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 · 절주 · 고운말 · 미소 · 인터넷 -도민건강을 위한 건강동호회 운영
이웃공동체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문화 확산 - 돌보미운동 전개 - 주민 생활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랑의 김장 · 쌀 · 연탄나누기 -사랑의 밑반찬 · 고추장 나누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u>홀몸노인 돌보미 사업(새마을머느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 빨래, 청소, 말벗, 생신상 등 -<u>Y-SMU포럼 재능기부 봉사활동</u> -다문화가정 한국적응 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결연, 문화 · 음식 체험 등 -방법 · 방역 등 안전지킴이 활동
경제공동체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 한미음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u>3R 자원다시 모으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사회 만들기 - 귀농·귀촌인 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전, 溫맵시(내복입기), 쿨맵시 -중고생활용품 나눔장터 운영 -휴경기 경작 및 영농봉사활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귀농·귀촌인 결연 등 정착 돕기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구촌공동체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새마을교육) - 개발도상국 새마을협력사업 - (해외새마을 조직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학·관 해외봉사단 운영 -개도국 새마을협력사업 추진
조직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공동체 네트워크 추진 -조직정비 및 회원배가 운동 -Y-SMU포럼 내실있는 운영 -1% 나눔 CMS 후원회원 모집 -1읍면동 1공동체사업 선정 및 특성화

※ 밑줄 친 사업은 2015년 사업임.

현재 충남도청은 안전자치행정국 도민협력새마을과에 새마을봉사팀을 운영하고 있음. 충남도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새마을봉사팀의 주요 업무는⁵⁾, 정신계몽사업, 주민복지사업, 자원봉사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 등으로 유형화될 수 있음.

구분	팀 업무
정신계몽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정신발양운동 전개 -스승존경운동 추진 -충효예교실 운영 -여성 도의교실
주민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 없는 마을지원 육성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여유가 있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추진 -자원봉사 교육 및 운영
자원봉사 및 사회단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마을운동 조직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5)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르게살기 도협의회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도지회 행정업무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기타 지원 -기타 사회단체 지원
--	---

5. 충남 제2새마을운동의 방향과 과제

(1) 제2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방향

충남 제2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① 정치적 관점보다 중립적 관점에서의 재해석

제2새마을운동을 지방정부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2새마을운동이 과거 새마을운동과 같이 지역발전전략의 근간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을 정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객관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일부 정치권이나 사회단체 등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중립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과거 권위적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FTA확대로 인한 경쟁력약화에 처해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인화로 특징 지워지는 지역사회에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의 공과를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역사회발전의 시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음.

이를 연계하여 “제2새마을운동” 명칭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과거 새마을운동이 “잘 살아 보세” 운동이었다면, 현재 요구되는 새마을운동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복지 확충으로 ‘행복한 사회’ 등으로 변화되어야 함. 이런 여러 목적을 포괄하는 새로운 목표를 (가칭) 「지속가능발전 운동」으로 표현하여, 정치적 동기라는 정치동학적 의미에서 벗어나, 지방정치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 해도 지역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발전전략 임을 천명할 수 있을 것임. 또는 민선6기 충남에서 추구하는 “행복”을 인용하여 (가칭) “행복운동”으로 개칭할 수도 있을 것임. 어떤 명칭이든지 간에, 제2새마을운동이 추구하는 목표가 정치동학적 의도가 아니라, 정치권력 변동과 무관하게 지역발전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장기적인 수단이라는 주민의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어야 함. 예컨대 민선6기 3농혁신이 지역 농어촌·농어업의 장기

적 발전방향이라면, 굳이 “제2새마을운동”이라는 명칭을 고집하면서까지 3농혁신의 목표를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임.

② 운동주체의 확보

1970년대를 경험한 중장년에게는 새마을운동이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30대 이하 젊은 층에게서는 새마을운동이 폭넓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음. 제2새마을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운동을 향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젊은 세대가 ‘지역사회’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새마을운동에 대한 가치를 널리 이해할 필요가 있음. 충남도에는 기존 새마을운동 조직 이외에 많은 다른 시민조직이 있음. 과거 새마을운동이 추진 방식, 즉 지역주민의 주도하에 官은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2새마을운동을 추진주체를 현재 기존 새마을운동 조직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시민단체도 포함하는 방향이 필요함. 여기에서 우리 사회를 보수/진보라는 이분법적 바라보는 편향된 정치이념적 시각을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제2새마을운동에 대한 중립적 시각에서의 해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③ 새마을전담부서의 위상 제고

제2새마을운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도 요구됨. 이는 官이 개입하여 끌고 가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유인 등을 통해 지원하자는 것임. 이런 행정적인 지원은 도민협력새마을과에 국한되지 않고, 충남도의 여러 실국 현재 도민협력새마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형식을 통해 더 많은 민간주체의 자발적 활동을 북돋을 필요가 있음.

(2) 제2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영역6)

새마을운동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발전해 왔음. 산업화·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을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6) 정우열, 남홍범, “한국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과 방향”, 『한국행정사학지』, 제32호, 2013.6. 참조

국가발전에 기여한 국민적 총화정신을 신생국이나 저개발국가에 전파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의 국제화가 요구됨. 또한 새마을운동은 지방자치와 상호작용성을 높이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상호신뢰와 공존,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ODA 등을 통한 새마을 국제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화할 필요가 있음.

① 그린새마을운동

그린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이 2000년대 들어서 매년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름을 내걸며 환경문제에 특히 전념해 오며 축적한 경험의 산물임. 7) 그린새마을운동은 요약컨대 새마을운동이 무엇보다도 환경문제에 전념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사실 새마을운동의 환경운동 활동은 이전에도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환경보전운동, 친환경운동, 환경가꾸기운동, 친환경생활화운동 등의 이름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린새마을운동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새마을단체는 지역사회와 함께 주변지역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산림은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공익적 가치 외에도 직접적인 가치로 목재 생산을 비롯해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부산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중요함. 유희지, 연도변·생활주변 녹지 공간을 활용한 녹지조경을 비롯하여 특성 있는 가로수 거리조성, 담장 허물기 사업, 벽면녹화사업, 수벽조성사업, 장미식재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 산림 내 휴양 공간 조성, 아파트 녹지조경, 범시민나무심기 운동인 가정 식수 등 중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화하고 가족단위 또는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물품 및 금전적 지원자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함. 먼저, 새마을단체는 강 및 물 보호 및 절약을 위해서 물 사용에 대한 생활습관을 변화시키고, 수질오염

7) 최재송, “녹색새마을운동의 이론적 본질과 내용”, 『새마을지역개발과 지역사회연구』, 6, 경원대학교 새마을연구소, 2010. pp.47-80.

예방활동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지역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새마을단체는 가구당 물 저금통 설치, 수질정화 식물 시범재배, 여름철 환경안내소 운영,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제작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함. 또한 물 절약을 위하여 양치질시 컵 사용, 설거지통이용, 양변기 벽돌 넣기, 수도꼭지에 절수기 설치, 페트병을 수거해 모래, 자갈, 물 등을 넣어 각 가정에 보급하고 물 절약 실천 교육 및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절수기기 전시 및 홍보 등의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새마을단체는 강·하천 살리기 교육·홍보 활동을 적극화하고 강·하천 살리기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소하천 정화 및 장마철 기간에 쌓인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태계 보전 차원의 풀베기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가칭 저탄소 녹색시범마을을 조성함. 녹색시범마을은 고에너지와 고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에너지 저탄소 배출을 통하여 친환경적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녹색시범마을의 조성은 저탄소 배출을 통하여 미래 사회의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즉 녹색시범마을은 단순한 환경문제의 해결 창원을 넘어 지역 주민과 나아가 인류가 행복 추구의 주체가 되며 지구촌을 새롭게 바꾸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고자 하는 전환기의 인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녹색시범마을은 에너지 절약에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저에너지 배출을 위한 공동의 아이디어로 보다 친환경적인 마을을 조성하게 됨. 녹색시범마을은 새마을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저탄소 녹색마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줌. 즉 지역의 지리적·사회경제적·문화적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새마을단체의 선호에 맞는 시범마을을 가능하게 해줌.

넷째, 생활 속의 녹색화를 지속화 함. 녹색생활은 우리 가정과 일상생활에서부터 출발하고 실천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 우선 가정에서 적정 실내 온도 지키기, 절전 형 멀티 캡 사용, 녹색제품이용, 불필요한 조명크기의 설정 등이 이루어져야 함.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 하고, 반찬 적정량

만들기, 친환경 식단체 운영, 남은 음식 포장해가기 캠페인, 퇴비화 등을 실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평소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함. 경제속도 운전(60~80 키로), 급제동·급출발 안 하기, 엔진 공회전 안 하기 등을 실천하고, 자전거타기 생활화와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자원재활용 운동을 적극화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녹색새마을운동은 캠페인 중심의 국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으나 향후 새마을운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운동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함. 향후 새마을운동은 녹색생활 시민의 주체화, 녹색소비의 제도화, 녹색 소통혁명(네트워크)의 구축, 지역사회 단위의 실천운동, 녹색생활 문화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함.⁸⁾ 또한 녹색새마을운동은 결코 일회성 활동이 되지 말아야 하며, 향후 글로벌 과제인 환경보호의 맥락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에게 읽힐 수 있는 녹색새마을운동의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나 새마을운동 교육의 능력을 갖춘 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보다 많은 계층의 국민들에게 교육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녹색새마을운동이 세대를 거쳐 계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의 양성이 요구됨. 현재 충남의 3농혁신의 주요 과제로 지역리더육성사업이 있는 바, 이를 제2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종전의 독자적인 새마을운동 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환경이라는 좀 더 공통되고 글로벌화 되어 있는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좀 더 개방적으로 다양한 환경 NGO들과의 제휴와 협력이 필요함.

② 새마을운동과 지방자치의 연계

새마을운동의 협동정신은 민주정치발전의 제도화라고 볼 수 있음. 지방자치의 자발성과 민주주의 발전의 하나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음. 민주정치발전의 관건은 토론에 의한 관용과 양보의 합의정신임. 새마을운동은 스스로 참여하여 참여한 사람들의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이러한 운동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에 대한 훈련이고 정치발전에 대한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음.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을 다함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각

8) 최용호, “녹색새마을운동의 과제”, 『새마을지역개발과 지역사회 연구』, 6, 2011, 경운대학교 새마을연구소, pp.1-28.

자의 고유한 영역과 기능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특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 상대방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발전을 위해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지방자치의 새마을운동의 장점을 더욱 조장함과 아울러 새마을운동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결함을 보전하고 시정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며, 새마을운동 역시 지방자치의 취지와 원리를 더욱 확대시키는 동시에 그것이 갖는 한계성과 부작용을 극복하고 제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그리고 주민들은 행정으로부터의 지원과 지도를 받는 수동적 소극성에서 지역을 위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사업계획을 행정에 제시하여 행정의 호응을 받으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적극적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됨. 특히 민선6기 충남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에서 주민 스스로의 자발성에 기초한 제2새마을운동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음.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을 연계시키고 접목시켜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다음과 같음.

첫째,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의 경제적·환경적·정신적 발전을 추구하는 주민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은 지방자치의 자기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의 겨냥하는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임.

둘째, 새마을운동의 입장에서는 공권력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와 밀접한 긍정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 보다 활발한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될 것임.

셋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본 필요성으로써, 동일지역 안에서 같은 주민이 담당하는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이 일체가 되어 기능하게 되면 주민의 정신적 부담이 작아지고 노력한 효과는 커지게 되며 추진하는 과정도 용이해지게 될 것임.

넷째,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의 연계는 지역발전의 능률성에 있음.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이 강한 연계성을 이루면서 전개될 때는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기 용이하고 따라서 지역개발의 효과는 더욱 증대하게 될 것임.

다섯째, 국가의 입장에서 본 필요성은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다 같이 긴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이 강한 결속과 유대를 가지고 전개됨으로써 국가전체로서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이의 수렴을 통한 국력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임.

동네자치와 연계한 새마을단체 참여와 활동은 이러한 지방자치와의 연계라는 큰 틀 안에서 관련 부서와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향후 필요한 과제임

③ 사회적 자본의 확충

새마을운동이 순수한 NGO특성을 지니면서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은 사회개혁의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 특성에 의해 자율성과 개혁지향성을 갖추어야 함. 이는 새마을운동 구성원들의 수동적 태도로 인하여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임. 따라서 새마을구성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높은 신뢰를 형성하며, 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자발적 활동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성원들이 규범을 준수하도록 해야 함.

사회적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슷한 규범, 가치,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의 수는 늘어 남. 높은 연결망을 갖는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강한 사회적 규범과 믿음은 규칙과 관습에 순응하도록 하고 공식적인 통제의 필요성을 감소시킴. 또한 신뢰에 기초한 상호호혜 및 협동의 가능성도 커짐. 신뢰, 협동, 참여, 화합, 배려, 호혜와 같은 시민사회 가치규범들이 충만한 곳에서 연대의 범위와 깊이가 증대되고 교환행위가 효율화되며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함.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회에서는 새마을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임.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형성과 유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첫째, 사회적 자본은 특정한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충청남도에 사회(적) 자본 육성 업무를 담당할 주체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회

(적) 자본 육성 업무를 추진하되, 이 육성기관은 사회적 자본을 발굴, 육성,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 자본 간 협력과 조정, 시민과 정부, 경제 등 다양한 세력 간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교육, 정보제공 등과 같이 사회적 자본 형성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둘째, 사회적 자본은 새마을단체의 활동에 의해 보다 잘 생성·발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사회에서는 구성원이 단체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구성원 간 소통과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어 사회화합이 증진됨.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 인터넷의 발달로 형성된 사이버 공동체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특성을 가지며 구성원의 다양한 시각과 주장을 허용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가능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모이고 함께 하는 경향을 나타냄.

셋째,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주민의 자발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새마을단체가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지역의 공공시설들이 참여의 장으로 들어올 때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음.

넷째,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시민적 규범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을 통해 형성되거나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새마을단체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란 기술적 전문가에 의한 사회공학적 연구나 정책이 아닌, 실천을 통해 조금씩, 하나씩 배워가고 쌓여가는 것임. 새마을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시민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구성원 간에 신뢰하고 상호협력하며, 시민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기 때문임.

다섯째,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유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거버넌스는 국가 및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행위자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과 관련되고, 행위자들의 자율성에 의한 상호협동을 의미함. 따라서 거버넌스가 잘 구축된 단체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도 용이함.

대전시에서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주요한 시정목표로 삼고 있음. 호

해와 상호이해·존중의 공동 의식이 지역발전의 주요 요소가 됨을 사회(적) 자본은 강조하고 있음. 사회(적) 자본은 제2새마을운동과 연계될 수 있는 주요한 지역발전의 요인임

④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오늘날 우리사회는 다국적기업의 생산과 판매,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 증가, 해외여행, 유학, 문화와 정보의 국제교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국경을 초월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관계가 활성화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한국 근대화를 촉발시킨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국제 관계를 모색해 볼 수 있음. 특히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정신혁명과 실천운동으로서 한국사회의 가난과 위기를 극복해 준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이제 한국사회는 산업화과정에서 터득한 경험과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원조와 지원을 후진국들에게 돌려두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새마을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통하여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공존하고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제 지구촌이 다함께 공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새마을 사업을 적극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 국제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새마을운동 국제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새마을 운동 국제화를 위한 기금확보방안, 새마을 운동 해외 수출 및 홍보방안, 새마을 운동 국제화 행사추진, 새마을 운동의 국제브랜드화 추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나아가 새마을단체는 세계화 시대에 국제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오늘날 우리사회는 다국적기업의 생산과 판매,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증가, 해외여행, 유학, 문화와 정보의 국제교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국경을 초월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관계가 활성화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한국 근대화를 촉발시킨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국제관계를 모색해 볼 수 있음.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정신혁명과 실천운동으로서 한국사회의 가난과 위기를 극복해 준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충남도는 중국등 길림성 등 해외 농촌지역의 지자체와 자매결연 혹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국제교류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제2세대마을운동을 매개로 한 국제교류는 농어촌을 개발 중인 국제교류 지자체에게 매우 실질적인 교류사업이 될 수 있음

6. 3농 혁신과 연계한 제2새마을운동의 방향

1) 3농혁신의 비전, 목표, 기본원칙

3농혁신은 과거 행정주도의 농정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농어업인의 농정의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도지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자는 것임. 3농부문은 농어업부문, 농어촌부문, 농어업인 부문임. 농어업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육성하여 소득을 향상하고, 농어촌부문에서는 삶의 질을 제고하며, 농어업인부문에서는 농어업 리더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으로는, 첫째 농어업, 농어촌의 문제를 하드파워, 행정주도로부터 소프트파워, 민관협력 파트너십으로 해결하고, 둘째, 협동과 연대,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 셋째, 외부의존형 발전으로부터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 넷째 생산기반 중심의 농어업발전전략으로부터 가공·유통·마케팅을 강화하여 6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는 점, 다섯째 창조적·역발상적 접근을 통해 기존의 관행적 접근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임

2) 3농혁신 2단계 전략과제와 중점사업

1단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희망마을 만들기,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리더 육성 등 5대 핵심부문을 설정하였고, 2단계에서는 생산, 유통, 소비, 지역, 역량 혁신 등의 5대 핵심부문을 설정하였음. 3농혁신 1단계는 3농혁신을 준비하고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단계라면, 2단계는 1단계의 기반위에 보다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확산하는 단계로 설정되어 있음.

2단계에서는 민선5기 3농혁신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지향하되, 민선6기에는 현장의 요구와 실행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5대 혁신부문, 15대 전략과제, 50대 중점사업을 과제중심 추진전략을 구조화하고 있음

<3농혁신 단계별 정책방향 비교>9)

구분	이전 ~ 민선5기	민선6기
참여주체	-농어업인→농어업인+일부소비자	-농어업인+소비자(소비자 참여 확대)
접근방식	-의사결정체계 부재 → 다양한 관련주체 참여 시도 -중앙정부 사업 의존 → 혁신사업 발굴 및 사업결 혁신 도모 -폐쇄적·한계적 접근 → 참여적·시범적 접근	-참여주체의 확대 및 협력적 의사결정시스템 확립 -미래농정 패러다임과 기존의 핵심가치 반영 -중소농정책 가치와 시장지향적 현실을 반영한 혁신 도모(2 트랙) -포괄적·다양성 측면에서의 전략적 과제별 접근
농어업전략	-관행적 경쟁력 강화 → 주요 테마에 대한 새로운 혁신 시도	-주요테마 및 산업분야별 혁신도모(생산, 유통, 소비) -지속가능한 농어업 지향
농어촌전략	-공간(HW)중심 → 내발적 역량(SW) 중심 -하향식개발 → 삶의 질 +종합적 복지	-농어업 + 농어촌 역량 강화(소비자 참여 시도) -거버넌스형 합치농정 -삶의 질 중시 + 맞춤형 복지
혁신단계	-3농혁신 준비 및 도입(시범적 접근)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확충(현실적 접근 및 확산)

2단계에서는 농어업부문에서의 “가치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산업 육성”, 농어촌부문에서의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농어업인 부문에서의 “농어업인 주체가 되는 협치농정의 실현”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정책방향으로는 “하드파워, 행정주도로부터 소프트파워, 협치농정으로”, “대외경쟁력 중심으로부터 협동과 연대, 지역 네트워크 강화”, “외부 의존형 발전으로부터 지역 내발적 발전 도모”, “생산기반 위주로부터 가공·유통·마케팅 강화”로 설정되어 있음.

5대 혁신전략은 생산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신성장 농산업 육

9) 3농혁신 2단계 추진계획, 충청남도, 2014 회의자료 참조.

성, 유통부문에서는 농산물유통 선진화체계 구축 및 융복합 산업 육성, 소비부문에서는 도시·농촌 상생발전과 착한소비 정착 기반 마련, 지역혁신부문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좋은 삶터·일터 가꾸기”, 역량혁신부문에서는 “농어촌주민의 역량강화 및 협치농정체계 구축”을 설정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15대 전략과제, 50개 중점사업을 선정하였음.

<생산혁신부문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

전략과제	중점사업
지속가능한 친환경 고품질 농업육성	쌀관세화 대응 충남쌀 경쟁력 강화
	광역친환경농업벨트 조성
	충남 시설원에 산업밸리 조성
	로컬푸드와 연계한 원예특작 특화단지 조성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GAP 인증면적 확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재정 내실화
자연친화형 선진 축산업 육성	시장개방 등에 대응한 친환경·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축산물 유통·소비기반 확립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자원화 추진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통한 안전축산 기반 구축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및 임산물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경쟁력 있는 임산업 육성
	산림휴양문화 조성 관리
수산자원의 미래 산업화	충남 4대 명품 수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
	섬마을 중심 수산업 특화단지 조성
	안정적인 바다자원 생산기반 확충
지역맞춤형 미래농업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확대	기후변화 및 미래농업 대응기술 확보
	현장실용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
	씨앗산업 육성 및 미래 성장농업 시범 확산
	3농 혁신 현장참여형 농정실천 농업인 발굴
	신기술 현장접목 연구 및 기술보급 확산

<유통혁신부문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

전략과제	중점사업
지역순환형 로컬푸드 소비활성화 기반 조성	생산자 중심의 로컬푸드 체계 구축
	학교급식을 이용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
	공공부문 및 기업의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공급
산지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생산자 조직 및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광역브랜드 중심 유통계열화 선도
농산업촌 융복합 산업화로 부가가치 창출	농업6차산업 활성화
	농촌지역 전통식품 산업화

<소비혁신부문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

전략과제	중점사업
공정팜핑에 기초한 도농 쌍방향적 교류 활성화	충남형 「3味 프로젝트」 추진
	생활형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도농교류 활성화 시스템 구축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로컬푸드 운동 확산
농업가치 교육 및 농촌어메니티 활성화	농업의 가치이해 및 농촌체험활동
	전통식문화 계승·보급 및 바른 식생활 실천
	농업·농촌 가치확산 프로젝트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

<지역혁신부문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

전략과제	중점사업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및 지역혁신모델 구축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농산어촌 마을 재구조화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모델구축 사업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농업기반 구축	미래형 농업기반 구축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역량혁신부문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

전략과제	중점사업
농어촌 인력의 체계적 발굴·육성·관리	농어촌 지역리더 육성
	농어촌 후계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지원체계 구축
	품목별 대표자 육성 및 농어촌주민 평생교육 강화
	귀농하기 좋은 충남 조성
농어촌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확충	충남형 농촌서비스 기준 마련 및 복지향상 종합 계획 수립 추진
	여성농업인 영농향상 및 농촌보육복지 지원체계 구축
농업인 주체의 협치농정 실현	3농혁신 지속 추진 기반 마련
	충남형 농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

3농혁신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충남도정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로 1단계가 추진되었으나, 아직도 일부의 회의적 시각과 수동적 자세 등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음. 1단계의 성과를 이어가고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선6기 들어 2단계를 추진하고 있음. 2단계에서는 생산, 유통, 소비, 지역, 역량 등 5대 혁신부문에 집중적으로 역점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친환경고품질,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활성화, 중소농 보호,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와 지역혁신, 지역리더 육성 등을 통해 농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가치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음. 또한 농업환경·현장요구에 대응하여 전업농을 육성하고 산지조직화 등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음. 아울러 쌀 관세화, FTA 확대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우리 농어업의 대내외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직불금 제도 개선 등 농가소득 안정 및 신성장 농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3) 3농혁신 연계 제2새마을운동 방향

① 기존 3농혁신 관련사업과 새마을운동 조직과의 연계 모색

『3농혁신 2단계 추진계획』에서 추진되는 3농혁신 관련사업에 새마을조직이 참여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이를 위해서는 3농혁신 관련사업 해당부서와의 워크숍 등을 통해 3농혁신의 틀

내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3농혁신 2단계 추진계획』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아래의 사업을 검토할 수 있음.

<생산혁신부문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

전략과제	중점사업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및 임산물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경쟁력 있는 임산업 육성
	산림휴양문화 조성 관리
지역맞춤형 미래농업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확대	3농 혁신 현장참여형 농정실천 농업인 발굴

<소비혁신부문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

전략과제	중점사업
공정팜핑에 기초한 도농 쌍방향적 교류 활성화	충남형 「3味 프로젝트」 추진
	생활형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도농교류 활성화 시스템 구축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로컬푸드 운동 확산
농업가치 교육 및 농촌어메니티 활성화	농업의 가치이해 및 농촌체험활동
	농업·농촌 가치확산 프로젝트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

② 기존 3농혁신 관련 도민협력새마을과의 자체사업 모색 영역

3농혁신의 전략과제를 새마을과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을 모색함. 이에 해당되는 전략과제는 지역혁신 부문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역량혁신부문의 ‘농어촌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확충’, 그리고 ‘로컬푸드운동 확산’ 등 3농혁신의 정신운동 지원 관련 자체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7. 결론 및 정책제언

제2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2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려는 충남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 즉 과거에서와 같이 제2새마을운동이 도정의 중심방향으로 설정되어야 각 실국별, 시군별 연계가 가능할 것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변동, 시대적 흐름과 함께 제2새마을운동이 국정, 도정에서 주변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제2새마을운동을 도정의 중심 역할로 설정하고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

따라서 제2새마을운동을 도정 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2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치동학적 해석에서 시대에 맞추어 중립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추어 명칭변경도 고려할 수 있음. 둘째, 기존 새마을운동조직과 기타 시민조직과의 연대를 통해 제2새마을운동의 목표를 협력추진할 필요가 있음. 셋째, 새마을운동 전담부서의 위상도 제고되어야 함.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제2새마을운동의 활동영역도 재설정되어야 함.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은 첫째 환경분야, 둘째 지방자치분야, 셋째 사회적 자본 확충 분야, 넷째 국제화 분야를 들 수 있음. 이와 같은 분야(활동영역)를 먼저 합의에 의해 설정하고, 관련 실국/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구체적 사업과 활동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농혁신과 관련한 제2새마을운동은 먼저 3농혁신 2단계 사업 가운데 새마을운동조직을 통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구체적 연계를 찾는 작업과, 3농혁신의 전략 중에 도민협력새마을과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협의와 논의의 과정을 통해 설정하는 작업이 후속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오유석 엮음,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 한울 2014. pp.355-362 참조.
- 정우열, 남홍범, “한국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과 방향”, 『한국행정사학지』, 제32호, 2013.6.
- 최용호, “녹색새마을운동의 과제”, 『새마을지역개발과 지역사회 연구』, 6, 2011, 경운대학교 새마을연구소, pp.1-28.소, 2010. pp.47-80.
- 최인규·이정훈, 새마을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0집 3호, 2013.2.
- 최재송, “녹색새마을운동의 이론적 본질과 내용”, 『새마을지역개발과 지역사회연구』, 6, 경운대학교 새마을연구.
- 충청남도, 3농혁신 2단계 추진계획, 2014.